

아시아 민주주의의 비교분석과 공고화

임성학*

이 논문은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여러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공고화 수준과 경제발전의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경제발전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화 이행 패턴과 공고화의 경우 개혁과 거래에 의한 민주화를 경험한 국가가 높은 공고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당체제와 공고화의 경우 경쟁적 다당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공고화 수준이 높다. 정체성문제와 공고화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경제발전 정도, 이행패턴, 정당체제가 공고화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서론

20세기에 인류가 이룩한 가장 위대한 성과 중의 하나는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는 1970년대 중반 이래로 제3세계 국가들로 확산되었고 1980년대 후반 이후 동구권 국가들이 민주화 물결에 가세하여 전세계의 2/3가 넘는 나라의 국민들은 자유로운 정치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 '제3의 물결' (Huntington, 1991)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졌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전 세계의 보편적 원리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이런 물결은 아시아도 예외는 아니었다. 1980년대 중반 민중의 힘으로 독재정

*중앙대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관심분야는 정치경제, 대만, 경제개혁, 민주주의, 정치자금 등이다. 저서 및 논문으로는 임성학(2000), "재벌개혁과 정부와 NGOs의 역할: 경실련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집 4호: 119-13. 임성학(2000), "한국의 은행해외매각과 금융개혁: 제일, 서울은행의 비교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0집 제4호: 485-50 등이다(E-mail: shlim@hanmir.com).

권을 몰락시킨 필리핀을 필두로, 한국과 대만이 민주화에 성공하였으며, 1990년대 초반 태국, 1990년대 후반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전반에 걸쳐 민주화의 물결이 일어났다. 현재 강력한 권위주의 통치로 말레이시아의 경제부흥을 이끈 마하티르 총리에 대한 비판과 민주화를 주장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어 말레이시아의 민주화도 그리 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이제 전 세계의 보편적 지배원리라는 점(Fukuyama, 1992)에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의 리관유(李光耀)와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는 아시아의 특수성(Zakaria, 1994)을 강조하여 아시아적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반면에 한국의 김대중 전직 대통령(Kim, 1994)은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강조하며 서구식 민주주의의 수용을 주장하고 반민주적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염려하기도 했다. 현재 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최선의 정부형태로 인정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민주주의 발전의 범위, 속도 등에서는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각국의 특수한 상황, 즉 민주화 이행 패턴, 정치지도자의 지도력, 군부의 영향력, 정치제도의 차이, 인종·종교적 갈등, 시민사회의 성숙도, 정치 엘리트의 행태 등 구조적 혹은 정치행태적 차이는 아시아 국가들의 공고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공고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 성추문 등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끊이지 않고 있고, 정당들의 제도화나 민주화도 미비한 상태이며,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과도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로 정부를 과부하 상태에 당면하게 만들었고, 민주적 선거로 인한 분할 정부(divided government: 여소야대)의 등장, 인종·종교적 분쟁, 경제적 불평등 등은 민주주의 공고화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주화 이행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지만 공고화의 길은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화와 민주주의 공고화의 비교연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일반화(generalization)를 추구하고 있다.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일반화를 시도하는 것과 지역 내의 국가들에게만 적용되는 일반화를 피하는 것이다(Bunce, 2000). 전자의 예로서 민주화에 대한 전반적인 일반화를 시도하는 접근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립셋(Lipset, 1959)의 연구 발표 이후 양적 방법을 이용한 구조

주의적 시각(the quantitative structural approach)이다. 립셋은 산업화, 도시화, 부(wealth)와 교육을 사회, 경제적 지표로 사용하여 민주주의와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¹⁾ 최근의 구조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쉘볼스키와 리몽지(Przeworski and Limongi, 1997)의 횡적 연구(cross-national studies)에서는 성장속도가 낮은 민주주의 국가가 성장속도가 빠른 국가보다 와해되기가 쉽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한국은 권위주의적 정권 아래 경제가 발전하고 민주화로 가는 경제적 시발점(threshold)인 \$5,000을 넘은 시점에 민주화된 점을 들어 근대화이론의 이상적인 모델로서 설정했다. 둘째, 사회, 경제 구조주의적 입장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시적인 접근으로 정치 행위자(political actor)의 선택과 전략을 연구하는 과정적 어프로치(the procedural approach)이다. 즉 민주주의는 사회, 경제적 요소에 결정되는 종속변수가 아니라 정치 행위자의 주체적 선택과 결단의 산물로 보는 시각이다. 오도넬과 슈미터(O'Donnell and Schmitter, 1986)가 대표적인 학자로서 경제발전등 구조적인 요건이 비록 정치 행위자의 선택과 전략을 제한하지만 정치변동 과정은 궁극적으로 정치행위자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주장한다.

셋째, 비교 역사적 접근방법(the comparative historical approach)이 있다. 정치, 경제발전의 주요요인으로 사회 집단, 국가, 국제적 변수를 연구하고 이런 요인이 어떻게 민주화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하는 방법이다. 무어(Moor, 1966)는 민주주의, 파시스트,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들의 이행경로들을 역사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국가, 계급간의 힘의 균형, 국가와 계급간의 관계, 자본주의발전의 수준 등을 국가체제 변화의 중요한 변수로 본다. 또한 스티븐스부부와 루쉬마이어(Stephens and Rueschemeyer, 1992)의 비교역사학적 연구는 자본주의 발전단계에 따라 변하는 사회, 경제적 요인들(국가와 계급간의 구조, 국제적 상황)이 민주화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경제발전과 민주화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양적 방법론에서 제시한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²⁾

1) 알몬드와 버바는 시민 문화(the civic culture)를 민주주의 전제조건으로 상정하는 문화 구조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2) 민주화에 대한 접근방법은 임성학(1998)의 논문을 참조.

후자의 경우는 국가별 혹은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아시아의 문화적 특수성, 유교적 전통, 종교적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화적 접근(Inglehart 2000; Zakaria, 1994)과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적 특성을 중심으로 민주화를 보는 제도적 접근이 있다(Easter, 1997). 민주화를 이룩한 아시아 국가들의 비교 연구와 공고화에 필요 조건들에 대한 기존 두 가지 접근을 모두 고려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와 공고화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공고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종속변수로 정하고 공고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이다. 먼저 공고화에 관한 기존의 문헌을 검토하여 공고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선택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의 공고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두 가지 형태의 일반화에 대한 평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민주주의의 공고화 측면에서 공고화 일반이론과 아시아적 특수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아시아 국가들 중 최근 20~30년 내에 민주화를 경험한 한국, 대만,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국가들이다. 비교분석을 통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민주화의 전망도 살펴보고자 한다.

3. 민주주의의 공고화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먼저 정의해 보자.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주요 행위자들이 권력을 획득하는 데 민주적 방식 외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어떤 제도나 집단도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책결정자들에 대해 거부권을 주장하지 않는 수준에 이른 것이라는 것이다(Linz & Stepan, 1996). 따라서 모든 국민들(특히 엘리트)

이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 이외의 대안은 없다고 인식하며 민주주의가 정치의 유일한 게임방식이 된 상태를 의미한다(Przeworski, 1991).

공고화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먼저 민주화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각국의 민주화 및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민간단체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와 시민자유(civil liberties)라는 기준으로 매년 각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하고있어 이 자료를 활용하여 아시아 국가들을 평가할 것이다. 둘째, 선거가 치러진 횟수, 정권교체의 경험³⁾, 민주정권의 내구성(Gasiorowski & Power, 1998) 등을 변수로 사용해서 평가한다. 그러나 이런 변수들은 인도네시아 등 신생 민주화 국가에 대해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셋째, 민주적 공고화는 민주적 제도·규칙 등이 “사회에서 유일한 게임”이 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 린즈와 스테판(Linz & Stepan, 1996)의 세 가지 공고화차원을 추가하여 평가하려고 한다. 이들의 세 가지 차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태적으로, 어떤 중요한 정치행위자도 민주정부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둘째, 태도적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심한 정치·경제적 위기속에서도 민주주의가 가장 적합한(문제 해결 위한) 제도라고 믿는다. 셋째, 헌법적으로, 모든 정치 행위자들이 민주적 절차·제도·법률에 의한 갈등 해소를 모색한다. 린즈와 스테판의 공고화의 기준 중 첫 번째, 두 번째의 경우는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엘리트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할 수 있으나, 이번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⁴⁾ 또한 세 번째 기준인 제도는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도적인 측면은 공고화의 원인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먼저 프리덤하우스의 민주화 지수를 살펴보자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와 시민자유(civil liberties)라는 기준으로 매년 각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하고 있다. 정치적 권리는 자유선거와 공정성, 참정권의 보호, 정

3) 정권교체는 공고화의 중요한 척도이다(Huntington, 1991). 그 이유는 집권세력과 반대세력 모두 패배를 용인하고 다음 선거의 승리를 위해 경쟁함으로써 민주주의체제 자체를 수용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정당이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는 체제이다(Przeworski, 1991).

4) 몇몇 국가에 대한 비교연구가 있으나(Flanagan, 2000), 적용한 기준이나 설문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

〈표 1〉 자유도 평가

국가	정치적 권리	시민자유	자유도 평가
대만	1	2	자유로운(free)
한국	2	2	자유로운
필리핀	2	3	자유로운
태국	2	3	자유로운
인도네시아	3	4	부분적으로 자유로운(partly free)
말레이시아	5	5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싱가포르	5	5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출처: www.freedomhouse.org

치기구(예: 정당)를 조직할 수 있는 자유, 정부반대세력의 존재와 이들의 정권 획득 가능성, 문화, 종교, 인종적 소수파에 대한 배려 등을 판단하여 평가한다. 시민 자유는 표현과 신앙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법치와 인권보호, 개인의 자치권 인정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결과 한국, 대만, 필리핀과 태국은 ‘자유로운’ 국가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평가되었다(〈표 1〉 참조).

대만, 한국, 태국과 필리핀이 ‘자유로운’ 국가로 평가되었고, 민주화된 국가 중 인도네시아만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평가되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평가되었지만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네시아보다는 낮은 수준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주화 시기와 정권교체의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이사회 국가들의 공고화 수준을 평가해 보자. 민주화한 국가들 중의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국가들은 모두 정권교체를 경험하였다(〈표 2〉). 위의 프리덤하우스의 자유도에서 민주주의 국가

〈표 2〉 민주화 시기와 정권교체의 경험

	대만	한국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민주화 시기	1987년	1987년	1986년	1992년	1998년		
정권교체의 경험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들 중 가장 낮은 자유도를 보이고 있는 인도네시아만 정권교체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권교체와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 경험이 4년 밖에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이 기준으로 공고화를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위의 두 가지 기준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 공고화를 평가해 본다면 대만과 한국이 가장 공고화되어 있고, 필리핀, 태국이 중간, 인도네시아가 가장 낮은 수준의 공고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4. 민주주의 공고화의 주요 원인

민주주의가 사회에서 유일한 게임이 되는 과정인 공고화는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가? 왜 국가들마다 상이한 민주주의 발전 형태를 보이는가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찾는 것이다. 먼저 거시적 일반이론인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 즉 서구에서 증명된 경제발전과 민주화,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상관관계가 아시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근대화이론에 기초한 분석 방법으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다. 각국의 경제발전수준, 산업화 정도, 교육과 도시화 수준(Lipset, 1981)과 중간과 노동계급의 크기(Rueschemeyer et. al., 1992; Lim, 1997)를 비교 연구하는 방법이다. 이런 사회경제적 구조요인이 공고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Gasiorowski & Power, 1998).

둘째, 민주화를 미시적인 접근으로 정치 행위자(political actor)의 선택과 전략의 결과로 인식하는 측면에서 살펴보자. 민주화 이행과정과 공고화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행 유형 중 개혁, 그 다음으로 거래, 그리고 부과 순으로 공고화의 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된다고 한다(임혁백, 1991). 붕괴의 경우는 보통 경제 위기와 함께 발생하여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Haggard & Kaufman, 1995).

셋째, 정당과 권력구조에 관한 정치 제도적 차원의 분석이다. 메인워링과 스컬리(Mainwaring & Scully, 1995)는 민주주의 공고화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을 강조한

다(Huntington, 1968). 정당은 정책결정의 통로를 제어하는 기능, 사회적 이익을 대표, 선별하는 기능, 사회 세력의 극단적 대립을 막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당체제의 제도화는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제도화된 정당체제는 첫째 정당 간 경쟁의 원칙이 세워져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둘째 주요 정당이 안정된 사회적 지지를 갖는 경우, 셋째 정치 행위자들이 선거를 통한 통치에만 정통성을 부여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정당 조직의 민주화이다. 이런 네 가지 기준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정당제도화 수준을 파악하고, 공고화의 상관관계를 찾아보려고 한다. 또한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와 공고화의 상관관계이다.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가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Linz & Valenzuela, 1994). 특히 다당제를 채택한 대통령제는 공고화할 가능성이 낮다(Mainwaring, 1993). 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대통령제와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다.⁵⁾ 이와 같이 정치제도적 측면의 분석을 통해 공고화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려고 한다.

넷째, 정치엘리트들의 행태에 관한 분석이다. 정치엘리트들이 비록 정치적 사안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지만 정치경쟁의 원칙과 기본적인 정부제도의 운영에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엘리트의 안정성(elite settlement)이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런 엘리트의 안정성은 공고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Choi et al., 1999). 엘리트의 안정성이 유지되면 정치체제의 극단화경향(권위주의 혹은 전체주의로의 회귀)을 막을 수 있다.⁶⁾ 정치엘리트들의 행태에 관한 분석에 한 가지 더 첨가한다면 비토포워(veto power)의 유무이다. 군부나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수혜자들의 권력이 강력할 경우 공고화는 지연된다(Aguero, 1992).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경우 아직도 군부의 영향력은 대단하고, 태국의 경우도 약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도 중요한 정치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정치엘리트에 대한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5)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등 극소수의 국가들만이 양당제를 채택하고 있어, 새로운 정당체계 분석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6) 엘리트의 안정성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설명하는 상반된 의견이 있다. 다음을 참조하시오(Burton & Ryu, 1997).

마지막으로, 정치문화적 분석이다. 용인(tolerance), 신뢰(trust), 이타주의(egalitarianism)와 타협하려는 의지와 같은 문화적 요소를 갖는 국가는 민주주의의 발전이 용이하다(Almond, 1980; Inglehart, 1988). 위와 같은 통합적인 분석이외에도 한 국가 내의 분열적인 문화, 인종, 종교를 통해 공고화를 보는 연구들이 있다. 린즈와 스테판(Linz & Stepan, 1996)은 국가성(stateness)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국가의 주권이나 정체성에 도전하는 문화, 인종, 종교적 요소가 있다면 공고화의 길은 험난하다고 주장한다. 대만의 본토인과 중국 내륙인의 갈등, 인도네시아의 이슬람교도와 화교의 갈등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위와 같이 한국, 대만, 필리핀, 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 공고화의 사례를 사회구조적 분석, 민주화 이행 유형, 정치제도, 정치엘리트의 행태, 그리고 정치문화적 분석을 통해 설명하려고 한다.

4.1. 사회구조적 분석

사회구조적 분석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경제발전과 공고화의 관계를 살펴보자. 쉘블스키와 리몽지(Prezeworski and Limongi, 1997)의 연구에 따르면 성장속도가 낮은 민주주의 국가는 성장속도가 빠른 국가보다 와해되기 쉽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한국은 권위주의적 정권 아래 경제가 발전하고 민주화로 가는 경제적 시발점(threshold)인 일인당 국민소득이 \$5,000을 넘은 시점에 민주화된 점을 들어 근대화이론의 이상적인 모델로서 설정했다. 따라서 일인당 국민소득과 성장률을 아시아 국가들에게 적용해 보자.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과 대만은 \$5,000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필리핀과 태국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일인당 국민소득이 \$5,000까지 올라가려면 아직 많은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3〉 참조). 반면 아시아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싱가포르의 경우 민주주의도 실현하지 못한 단계에 있어 사회구조적 분석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립셋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인간관계보다는 상관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The more well do countries, the more likely they sustain democracy”). 따라서 싱가포르의 경우 민주화에 성공한다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공고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

〈표 3〉 국가별 일인당 국민총소득(단위:US\$)

국가	일인당 국민총소득 (GNI per capita)	국가	일인당 국민총소득 (GNI per capita)
대만	12,876*	인도네시아	680
한국	9,400	말레이시아	3,630
필리핀	1,050	싱가포르	37,145**
태국	1,930		

출처: <http://www.worldbank.org/data/countrydata/countrydata.html>

* 대만(www.dgbasey.gov.tw)의 자료 참조. 숫자는 1일당 국민총생산(per capita GNP)을 의미함

**싱가포르(www.singstat.gov.sg)의 자료참조. 숫자는 1일당 국민총생산(per capita GNP) 을 의미함

아를 제외하고 일인당 국민총소득과 광고화 수준은 상관관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소득이 높은 한국과 대만이 가장 광고화 수준이 높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네시아의 광고화 수준이 가장 낮다.

민주화 이후 국민들은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정치적 자유와 함께 물질적 풍요도 민주화와 함께 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대부분의 신생민주주의는 경제실패로 몰락한 권위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해야하는 어려움에 처한다. 따라서 가시적인 경제성장을 단기간에 보여 주기 어렵다. 이런 경우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해 회의에 빠져 민주주의의 광고화는 어려워진다. 쉘볼스키의 연구에서도 성장속도가 낮은 민주주의 국가는 성장속도가 빠른 국가보다 와해되기가 쉽다고 주

〈표 4〉 국가별 경제성장률(단위: %)

	1981~1991	1991~2001	2000	2001	2001~2005
한국	9.1	5.4	9.3	3.0	5.9
필리핀	1.3	3.5	4.0	3.4	4.6
태국	8.2	3.2	4.6	1.8	3.7
인도네시아	6.4	3.2	4.9	3.3	4.4
말레이시아	5.7	6.1	8.2	0.4	5.2
싱가포르	6.8	7.7	9.9	-2.0*	n.a.

출처: <http://www.worldbank.org/data/countrydata/countrydata.html>(대만 관련자료는 없음)

* 싱가포르(www.singstat.gov.sg)의 자료참조.

장한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민주화 이전과 이후에도 기록하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로 경제성장이 주춤했지만, 다시 회복하면서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어 아시아 국가들의 공고화 가능성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4.2. 민주화 이행 유형

엘리트의 정치적 행태적 접근방법의 경우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 패턴을 칼과 슈미터(Karl & Schmitter, 1991; Kim, 2001)의 모델로 분류해 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대만의 국민당정권은 뚜렷한 위기를 맞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입법권(rule-making power)의 일부분을 피지배계층인 대만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거래 혹은 계약에 의한 민주화라고 할 수 있다(임석준, 임성학, 2000). 한국의 경우 정치엘리트간의 거래도 있었지만 중간계층, 학생, 노동, 반체제 인사들의 지속적인 압력으로 대만보다는 급진적인 민주화가 실행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개혁적 민주화과정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임성학 1998). 태국의 경우 강력한 군부정권의 내부적 개혁을 통해 민주화가 실행되었다. 정권에 대항하거나 거래할 만한 사회세력이 존재하지 않아 군부의 개혁세력이 일방적으로 민주화를 부과한 형태의 민주화를 경험하였다. 반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정치적 정당성의 하락과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민중세력의 정치화에 힘입어 기존의 정치엘리트들이 몰락하는 권위주의 붕괴형 혹은 혁명적 민주화를 경험하였다.

		이행전략	
		타협 : 다자적	힘 : 일방적
행위자	위로부터의 이행 (체제)	거래 (계약) (대만)	부과 (태국)
	아래로부터의 이행 (반대세력)	개혁 (한국)	붕괴 혹은 혁명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림 1>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 이행 유형

기존 권위주의적 엘리트의 영향권의 측면에서 민주화나 공고화는 혁명, 개혁, 거래, 부과의 순으로 공고화의 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된다. 하지만 혁명적 민주화의 경우는 보통 경제위기와 함께 발생하여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거래나 개혁적 민주화는 공고화의 속도는 늦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공고화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도 거래나 개혁적 민주화의 유형인 대만과 한국이 가장 높은 공고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혁명적 민주화에서 나타나는 경제침체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어 공고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민주화와 경제위기 이후 어려운 정치경제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에 따라 공고화는 결정될 것이다. 예상과 같이 부과 민주화인 태국의 경우 거래나 개혁 민주화인 한국과 대만의 경우보다 낮은 공고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4.3. 정치제도

동남아에 있어서도,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정당을 중심으로 한 의회 정치가 민주정치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발달하였다. 대중의 정치참여와 정치동원을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서 정당의 역할과 기능이 정치적 제도화와 민주적 정책결정과정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동남아 각국의 정치적 제도화의 수준과 정당정치의 양상은 천차만별이다. 그 이유는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들이 서구의 그것과는 매우 상이하기 때문이다(고우성 외, 2001). 그러나 공고화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경쟁적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리핀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과두 엘리트적 경쟁정당체제를 유지하고 있다.⁷⁾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와 공고화의 상관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가 민주주의 공고화에 성공할 가능성

7) 아시아 국가들의 정당을 정당체제보다 정당의 이념이나 연속성의 측면에서 평가한 경우도 있다. 블론델과 마쉬(Blondel & Marsh, 1999)는 아시아의 경우 대만과 말레이시아에서만 인종적 측면에서 잘 조직된 정당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머지 국가들의 민주화의 경우 이념이나 인종 등으로 사회에 뿌리 깊게 정착한 정당이 조직이 없어 정당은 민주화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표 5〉 각국의 정당체제와 권력구조

국가	정당체제	권력구조
한국	경쟁적 다당제	대통령 (총리)
대만	경쟁적 다당제	대통령 (부통령)
필리핀	과두 엘리트적 경쟁적 다당제	대통령 (부통령)
태국	경쟁적 다당제	내각제
인도네시아	불안정한 다원정당체제	대통령 (부통령)
싱가포르	일당우위 패권정당체제	내각제
말레이시아	패권정당체제	내각제

출처: 고우성 외. 2001. 『동남아의 정당정치』 서울: 오름. 신명순. 1999. 『비교정치』 서울: 박영사.

이 높고, 특히 다당제를 채택한 대통령제는 공고화 할 가능성이 낮다(Linz & Valenzuela, 1994; Mainwaring, 1993)는 것이 라틴아메리카를 사례를 연구한 결과이다. 하지만 민주화에 성공한 아시아 국가들은 태국을 제외하고 모두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다. 서구 민주주의와 아시아 국가들을 비교하여 공고화를 평가할 경우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의 차이로 평가할 수 있지만 아시아 국가들만을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정치문화적 접근은 아시아국가들의 문화, 종교, 전통, 생활양식 등과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시적 접근과 한 국가 내의 분열적인 계급, 문화, 인종, 종교적 갈등의 정도에 초점을 맞추는 미시적 접근이 있다. 거시적 접근은 문화와 경제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먼저 적용되었고 이를 민주주의의 발전과 접목시키고 있다. 일찍이 베버는 문화, 이념, 종교와 경제발전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면서 자본주의는 근대생활의 운명적인 힘이며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속적 욕망에 대한 금욕을 강조하는 프로테스탄티즘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양과 비교하면 외면적으로는 근대자본주의의 성립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도, 중국에 근대자본주의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보편성을 방해하는 유교와 신비주의를 강조하는 도교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일본, 한국, 대만 등의 동아시아국가의 경제발전을 문화적 특성으로 설명하려는 칸에 의해 비판받게 된다(Kahn, 1993 (1979)). 칸에 의하면 유교는 교육에 높은 가치를

두고, 성취에 대한 욕망이 높고, 임무, 직업, 가족, 의무에 대해 진지하기 때문에 산업화, 근대화에서 서구문화보다도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퍼킨스(Perkins)는 아시아의 긴밀한 개인적, 가족적 유대는 경제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유대관계는 서구에서 발전한 법과 독립적 사법기관을 대신하여 교환관계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안전과 신뢰를 제공한다. 싱가포르 수상 리관유(李光裕)는 경제적인 성장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화적 배경 즉 절약, 근면, 효도, 확장된 가족에 대한 충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에 대한 공경이 기반이 된다고 주장한다(Zakaria, 1994).⁸⁾ 윤리에 청교도윤리를 합한 '신유교윤리'라고 하는 신유교주의가 청교도윤리보다 우월하다고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유덕위).⁹⁾

경제발전과 문화와의 상관관계를 넘어서 정치발전과 관련해 헌팅턴(Huntington, 1997)은 중동의 이슬람과 동아시아의 유교를 서구 민주주의의 심각한 장애물로 규정한다.¹⁰⁾ 유교와 회교는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적이며 수평적이기 보다는 수직적 위계질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개인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와 융합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리스도교의 경우에도 교회나 교회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위계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가톨릭교보다는 종교개혁과 함께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독교와 민주주의에 더 부합하다고 주장한다. 가톨릭신자가 대부분인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이 서구민주주의국가보다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한 이유를 이런 문화적, 종교적 차원에서 설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시아의 국가들은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전통 하에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어 일반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톨릭 전통을 가진 필리핀, 불교적 전통국가인 태국, 이슬람이 전 인구의 80~90%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 모두 민주주의 국가이다. 단지 유교적 문화권에 있는 한국과 대만이 가장 공고화 수준이 높아 유교가

8) 리관유는 유교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가치와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한 서구적 가치가 근본적으로 다름을 강조하면서 미국식 모델을 무분별하게 다른 사회에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 후쿠야마(1998)는 리관유가 중국문화적 정체성에 내재해 있는 반서구적 정서를 이용하여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한다.

9) 자세한 내용은 임성학(2002)의 논문을 참조함.

10) 펠러(2000)는 이슬람 자체가 특히 폭력적인 문명인 것이 아니라 육로 경계를 사이에 둔 국가들 사이에서 갈등이 많다는 일반론을 확인시켜 줄뿐이라고 설명한다.

공고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추측은 해 볼 수 있으나, 경제발전과 같은 다른 변수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미시적 측면에서 린쯔와 스테판(1996)은 국가의 주권이나 정체성에 도전하는 문화, 인종, 종교적 요소가 있다면 공고화의 길은 험난하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비록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남한정부의 정체성에 도전하는 국내세력은 없다. 대만의 경우 민주화 이후 많은 대만인이 정계에 진출하여 과거 대륙인의 정치적 독점을 줄여나가고 있다. 2000년에는 대만인 출신이 쉰수이벤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대만인의 정체성이 다시 부각되기도 하였다. 과거 국민당은 대만인과 대륙인들 모두를 포용하는 '신대만인(the new Taiwanese)'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고안하여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기도 했다(임석준, 임성학, 2000). 그러나 대중국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대만인과 대륙인들의 인종적 차이는 존재한다. 따라서 대만의 정체성문제는 중간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필리핀의 경우 대부분이 가톨릭신자로 종교적 갈등은 심하지 않으나, 빈부의 격차의 심화로 급진세력과 소외종교의 결합으로 잦은 게릴라전, 소요 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필리핀도 정체성의 문제는 중간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경우 중국계 회교와 이슬람계 일반 대중과의 갈등 관계가 존재하고 있어 정체성 문제는 중간 단계로 평가하였다. 문화적 전통과 정체성 문제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각국의 문화적 전통과 정체성문제

국가	문화적 전통	정체성문제
한국	유교	낮음
대만	유교	중간
필리핀	가톨릭	중간
태국	불교	낮음
인도네시아	이슬람	중간
싱가포르	다문화혼합	중간
말레이시아	이슬람	중간

5. 결론

1980년대 민주화에 대한 연구는 비민주적 정권이 민주주의로 전환되는 환경, 즉 민주화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최근 많은 신생 민주국가들의 출현으로 그 관심은 민주주의 공고화, 즉 신생 민주주의의 내구성과 생존의 문제로 이전되고 있다. 정치과정적 연구는 주로 정치 엘리트들의 행태나 안정성(settlement)에 관심을 두고, 제도주의적 연구는 정당 혹은 권력구조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회구조적 연구는 사회경제적 변수, 문화적 요소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 범위도 소수 국가의 비교연구에서 전 세계국가를 대상으로 경험적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국내외 연구동향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연구를 추진하였다. 먼저, 기존 연구나 이론의 거의 대부분은 서유럽과 라틴아메리카의 민주화의 연구를 위해 개발된 것들이어서 아시아의 시각에서 바라본 민주화이론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점, 둘째, 아시아 몇몇 국가들의 비교연구 혹은 전 세계국가의 경험적 연구는 아시아 지역의 특수성을 간과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를 통해 아시아의 시각에서 본 민주주의 공고화를 살펴보았다.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여러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정리해보면 <표 7>과 같다. 공고화 수준과 경제발전의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공고화 수준이 높은 대만과 한국의 경우 경제발전 수준이 가장 높으며,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인도네시아가 가장 낮은 수준의 공고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민주화나 공고화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가장 경제발전 정도가 높은 싱가포르와 중간 정도의 경제발전을 보이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아직도 권위주의적 정치체도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화 이행패턴과 공고화의 경우 개혁과 거래에 의한 민주화를 경험한 국가가 높은 공고화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제발전 정도가 높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도 민주화가 된다면 개혁과 거래를 통한 민주화 가능성이 높아 두 국가 민주화된다면 공고화도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당체제와 공고화의 경우 경쟁적 다당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공고화 수준이 높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경쟁적 다당제와 대통령제가 혼

〈표 7〉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 공고화 유형

국가	경제발전	이행패턴	정당체제	정체성문제	공고화수준
한국	높음	개혁	경쟁적 다당제	낮음	높음
대만	높음	거래	경쟁적 다당제	중간	높음
필리핀	낮음	붕괴	과두 엘리트적 경쟁적당체제	중간	중간
태국	중간	부과	경쟁적 다당체제	낮음	중간
인도네시아	낮음	붕괴	불안정한 다원정당체제	중간	낮음
싱가포르	높음	연성 권위주의	일당우위 패권정당체제	중간	
말레이시아	중간	연성 권위주의	패권정당체제	중간	

합된 형태가 가장 공고화하기 어렵다는 연구가 있지만, 공고화 수준이 높은 한국과 대만이 대통령제와 경쟁적 다당제를 운영하고 있어 권력구조가 공고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정체성문제와 공고화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경제발전 정도, 이행패턴, 정당체제가 공고화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고우성 외 (2001), 《동남아의 정당정치》 서울: 오름.
- 서경교 (1997), “태국과 필리핀의 민주화 비교 연구.” 〈국제정치논총〉 36: 355-381.
- 신명순 (1999), 《비교정치》 서울: 박영사.
- 임석준, 임성학 (2000), “정당성의 변화와 대만의 민주주의 발전.” 한국정치학회 편 《21세기 비교정치학》 서울: 오름.
- 임성학 (2002), “한국과 대만의 경제발전과 전통사상: 경제발전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3(2): 91-110.
- 임혁백 (1991), “민주화비교연구 서설.” 〈한국정치연구〉 3: 163-189.
- 임혁백 (2000),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서울: 나남출판.
- 최장집 (1995),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서울: 한길사.
- 하랄트 뮐러 저/이영희 역 (2000), 《문명의 공존》 서울: 푸른숲.
- Acharya, Amitav (1999), “Southeast Asia’s Democratic Moment.” *Asian Survey*, Vol. 39, No. 3:418-432.
- Bunce, Valerie (2000), “Comparative Democratization: Big and Bounded Generalization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3(6/7):703-734.
- Burton, Michael and Jai P. Ryu (1997), “South Korea’s Elite Settlement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Journal of Political and Military Sociology*, 25(1): 1-24.
- Cheng, Tun-jen and Stephen Haggard, eds. (1992), *Political Change in Taiwan*.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 Choi, Jungug, John Higley, Tong-yi Huand and Tse-min Lin (1999), “Elite Settlement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Moon, Chung-in and Jongryn Mo, eds.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in Korea*.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 Dahl, Robert A. (1989), *Democracy and Its Critic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Diamond, Larry, Marc F. Plattner, Yun-han Chu and Hung-mao Tien, eds. (1997), *Consolidating the Third Wave Democracie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Easter, G. (1997), “Preference for Presidentialism: Postcommunist Regime Change in Russia and the NIS.” *World Politics*, 49:184-211.
- Flanagan, Scott C. (2000), “Value Change and Democratic Reform in Japan and Korea.”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3(5):626-659.
- Fukuyama, Francis (1992),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Free Press.
- _____ (1998), “Asian Values and the Asian Crisis.” *Commentary*, February.

- Gasiorowski, Mark J. and Timothy Power (1999), "The Structural Determinants of Democratic Consolidation: Evidence from the Third World."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1(6): 740-771.
- Haggard, Stephen and Robert R. Kaufman (1995), *The Political Economy of Democratic Transi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untington, Samuel P.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Oklahoma: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Inglehart, Ronald (2000), "Culture and Democracy." Lawrence Harrison and Samuel Huntington eds. *Culture Matters*. New York: Basic Books.
- Karl, Terry and Philippe Schmitter (1991), "Modes of Transition in Latin America, Southern and eastern Europe."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128: 269-284.
- Kim, Bum Suk (2001), "Divergent Paths of Democratization: Comparative Study of Taiwan and South Korea."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 Kim, Dae Jung (1994), "Is Culture Destiny? The Myth of Asia's Anti-Democratic Values." *Foreign Affairs*, 73(6): 189-194.
- King, Daniel and Jim LoGerfo (1996), "Thailand: Toward Democratic Stability." *Journal of Democracy*, 7,(1): 102-117.
- Liddle, R. William (2000), "Indonesia in 1999: Democracy Restored." *Asian Survey*, 40(1): 32-42.
- Lim, Sunghack (1997), "Stability, Development, and Democracy: South Korea and Taiwan."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Linz, Juan and A. Valenzuela, eds. (1994), *The Failure of Presidential Democrac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Linz, Juan J. and Alfred Stepan (1996),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 Lipset, S.M. (1981), *Political Man: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ainwaring, Scott (1993), "Presidentialism, Multipartism, and Democracy."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6(2): 198-228.
- Mainwaring, Scott and Timothy R. Scully (1995), "Introduction: Party Systems in Latin America," Scott Mainwaring and Timothy R. Scully, eds. *Building Democratic Institutions: Party Systems in Latin Americ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Moon, Chung-in and Jongryn Mo, eds. (1999),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in Korea*.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 Neher, Clark D. (1995), *Democracy and Development in Southeast Asia: The Winds of Change*. Boulder, CO: Westview Press.

- Pathmanand, Ukrist (2001), "Globalization and Democratic Development in Thailand: The New Path of the Military,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Contemporary Southeast Asia*, 23(1): 24-42.
- Power, Timothy, and Mark J. Gasiorowski (1997), "Institutional Design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the Third World."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0(2): 123-155.
- Przeworski, Adam (1991), *Democracy and the Marke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rzeworski, Adam and Fernando Limongi (1997), "Modernization: Theories and Facts." *World Politics*, 49(20): 155-83.
- Rueschemeyer, Dietrich, Evelyne Huber Stephens and John D. Stephens (1993), *Capitalist Development and Democra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chmitter, Philippe, and Guillermo A. O'Donnell. eds. (1986),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Democraci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 Schedler, Andreas (2001), "Measuring Democratic Consolidation."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36(1):62-92.
- Stockton, Hans (2001), "Political Parties, Party Systems, and Democracy in East Asia: Lessons from Latin America."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4(1):94-119.
- Subramaniam, Surain (2001), "The Dual Narrative of 'Good Governance': Lessons for Understanding Political and Cultural Change in Malaysia and Singapore," *Contemporary Southeast Asia*, 23(1): 65-80.
- Zakaria, Fareed (1994), "Culture Is Destiny: A Conversation with Lee Kuan Yew." *Foreign Affairs*, 73(2): 109-126.

Comparative Analysis of Democratization and Consolidation in Asia

Sunghack Lim*

This paper examines correlations of several socio-political variables with democratization and consolidation of the Asian countries. Economic development is highly correlated with the level of consolidation. However, it is a necessary but not a sufficient condition. In case of pattern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a country that experiences democratization by reform or pacts shows high level of consolidation. Party system is also known as an essential element of democratic institutionalization.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party system in the Asian countries, competitive multi-party system is highly associated with the consolidation level. National identity and consolidation show no relationship despite an expectation. In conclusion economy development, transition pattern, political party system are the key factors in consolidation in the Asian countries.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Researcher, Chung-Ang University. Political economy, Taiwan, economic reform, democracy, political funds. Sunghack Lim (2003). "Chaebols and Small and Medium-Sized Capitalists: The Forgotten Players in Korean and Taiwanese Democratization." *Pacific Focus* XVIII, Spring 2001 "The Politics of Economic Rise and Decline in South Korea" (with Chung-in Moon), Soong Hoom Kil and Chungin Moon eds., *Understanding Korean Politics* Albany: SUNY Press.